

충효로 근본을 삼고 경학으로
업을 삼아 유희한 관작과 영달을
구하지 말라.

閑窩公 遺戒



늙은 몸으로 막중한 大宗會長직을 맡은 지 어언 6년의 세월이 흐르고 있습니다. 돌이켜 보면 나라안 살림이 국제통화기금(I.M.F.)에 의지하지 않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기업은 도산되고 실업자는 사상최대로 늘어 생활이 극도로 어려워진 기간을 맞고 있으며 대북, 대미관계에서도 순탄치 못한 난맥상을 보여 정치적으로도 어지러워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속에서 희망스러운 미래를 기대할 수 없는 기간중에도 여러 일가분들이 성실한 조언과 참여로 대과없이 大宗會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는 중에도 보성의 청계영당의 신축과 청도 구연사의 보수와 혁판제작, 흥양, 안의 존하는 실정이라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坡州廉氏宗報

發行人 廉珪澤
編輯人 廉宗桓
編輯委員 東右, 秀東, 敏燮
南燮, 基培
發行處 (坡州廉氏大宗會)
서울시 용산구 서계동 130의 2 2층
전화: 714-6223 야간: 924-1020
印刷所 현대종합문화사 代表 鄭仁基

崇祖와 敦睦의 일념으로

그럼에도 조상을 모시는 사우가 20개소가 넘고 비록 사무실도 번듯이 갖지 못하는 규모이지만 활동과 의욕만은 타 성씨에 뒤지지 않을 궁지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놓여진 여건은 의욕적인 새로운 사업은 생각도 못할만치 경제적 사정이 어렵고 또 하고 싶은 사업으로 우리의 번듯한 사무실도 마련하고, 사정이 어려운 일가분들의 자제에게 장학금도 지급하고 대종회의 항구적인 안전운영을 위한 사업도 하고 싶은데 사정이 따르지 못하니 안타깝게도 현상유지에 급급하는 실정입니다.

우리가 몸이 아프다고 식사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과 같이 이럴수록 우리 일가들은 마음을 건전히, 굳건히 갖고 한 마음으로 모여서 목표하는

러한 기운은 아직 무르익지 못하고 있는 듯 합니다.

어찌되었건 대종회는 우리 일가분들의 유일한 구심체입니다. 하기에 모두는 애정을 갖고 적극 참여해야 됩니다.

옛날에는 한 장수만 힘이 세면 100만의 군사도 저지했다는 고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는 한 개인의 힘이나 의욕만으로는 큰 성과있는 업적을 기약할 수 없습니다.

모이고 뭉쳐서 한 방향으로 전진해야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관이 있고 임원들이 즐비해도 열성을 갖고 움직이지 않는다면 성과는 없는 것이니 일가분들은 넓이 홍보하고 서로 격려해서 조그만한 힘이라도 모여야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우리 대종회가 창설된지 어언 20년의 세월이 다가오고

과가 온 것입니다. 그러나 가능성이 언제나, 어디서나 나올 수 있습니다.

일가 여러분, 우리는 바닷가에서 뒹굴러 다니는 조약돌을 모아서 큰 성을 쌓는다는 끈기와 정성으로 보다 건설적이고 의욕적인 새 목표를 설정해서 대종회 일을 추진합시다.

조상님들의 유적이나 보전하고 제사를 모시는 일들 소홀히 할 수는 없는 과제이나 이 문제만을 가지고 10여년이 넘도록 급급해서야 되겠습니까.

개인의 명예나 지키고 한 고장의 사우나 보전하는 것만을 지상목표로 했다가는 개인의 명예는 물론 지역적인 발전도 기할 수 없다는 것을 통찰하시고 원대한 꿈과 보람을 가지고 서로 손잡고 매진 합시다.

일가 여러분과 가정에 만복

그동안 부족한 대종회기금을 어렵게 늘리기는 하였으나, 기금의 利子수익만으로는 대종회의 경상비조차 충당 못할 만치 금융시장의 예입이자율 감퇴로 어려웠던 차 임원들의 협조로 근근히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의 삼천제 보수, 그리고 충경서원의 묘정비건립과 동덕사, 서덕사에 신주를 모시는 등 업적이 있어 다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파주염씨는 인구 10만도 다 안되는 적은 문중입니다.

大宗會 소식

1. 2001년 定期總會 개최

2001년 4월 6일(금요일)
11:00시~12:45분간 서울 용산구 서계동 소재 大宗會 사무실에서 전국대의원 34명이 참석하여 2001년도의 定期總會를 가졌다.

가. 會長 인사와 감사보고를 마친 후 전년도 會計의 결산사항을 승인하고 새해예산 14,109,589원을 확정하였으며,

나. 대종회 임원을 개선하고(泰鎬, 明善, 基範, 圭鎬, 亢燮, 東三, 永勳)을 이사로 임명, 자문인 廷薰, 時均, 이사 錣浩 사임, 고문 康桓, 在熙, 부회장 弘周 사망으로 면직) 새해도 기금의 이자수익만으로는 대종회 경상비를 충당 할 수 없어 전 임원에게

일정금(회장 30만원, 보회장 20만원, 고문, 자문, 감사, 이사전원 10만원씩)을 현성하여 충당키로 합의하였다.

다. 강화사단의 운영사항을 보고하고 각 지역에서의 건의 사항 등을 청취하여 의견들을 모았다. ~ 선조분들의 향사 절차와 관직명을 통일하자는 의견이 있어 검토 합의키로 하였다.

기타사항

1. 2001년 음 3월 15일 경북 청도군 소재 향사시 구연사의 현판과 재실인 永照齋의 현판(崇道門)을 後孫 鳳哲氏에 의해 새로 쓰고 전각하여 달았다.
2. 1955년 11월 6일 서울 창경원에서 在京坡州廉氏 花樹會의 創立總會가 다수 인원이 참석하여 개최되었던바 大

일에 소결음으로라도 조금씩 다가가는 끈기가 필요할 때입니다. 지금까지 일해왔던 대종회 창설기의 늙은 세대는 새로 뻗어나갈 새 젊은 세대에게 뜻을 있게 하고 또 젊은 세대는 인식을 바로가고 마음의 준비를 하여야 함에도 이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족보를 출간한다, 설단을 한다 등 눈부신 활동을 했음에도 10년의 앞을 통찰하지 못하고 눈앞의 사업에만 전념한 결과 막상 그 하던 일이 끝나고 나니 힘도 쇠진하고 관심도 사라져 할 일을 찾지 못하는 결

이 함께 하실 것을 기원합니다.

2001년 가을에

大宗會長 廉 珪 澤

2001년도 회계 예산

수입

항 목	2000년 예산	2001년 예산
이 월 금	3,526,509	2,609,589
기금 이자 수익에서	4,000,000	5,000,000
임원 현성금	5,000,000	5,000,000
종보 간행지원원	1,000,000	1,000,000
종보 광고수익	500,000	500,000
계	14,026,509	14,109,589

지출

항 목	2000년 예산	2001년 예산
전화요금	500,000	500,000
사무비	600,000	600,000
출장비	600,000	600,000
회비	1,700,000	1,500,000
향축대	1,500,000	1,500,000
종보간행	2,000,000	2,000,000
경조비	1,000,000	1,000,000
거마비(총무)	3,600,000	3,600,000
사무실관리	500,000	500,000
세금(부동산)	400,000	400,000
잡비	300,000	300,000
예비비	1,326,509	1,409,589
계	14,026,509	14,109,589

果庵遺稿

廉在慎은 忠敬公后 18世孫
으로 哲宗 13年(1862) 7月
14일에 父 民煥, 母 星州李氏
사이에서 3男1女中 次男으로
寶城에서 태어났다. 字는 敬
汝이고, 號는 默軒, 또는 果
庵이다. 5세때에 모친상을,
1868년 그의 7세때 부친상을
입고 伯父 吉煥의 슬하에서
자라났다. 再從叔되는 鐘煥을
좇아 清溪書堂에서 受學하였
는바 이들 중 特히 月坡 鄭時
林과 松沙 奇字萬, 鄭艾山,
鄭日新 등과 講算經旨하여 師
友로 삼았다. 또 1899년에는
忠敬公의 神道碑 改堅을 위해
蘆月(在業)과 함께 淵齋를 찾
아가 碑文追記를 위해 問答을
했으며 勉庵(崔益鉉)을 仰慕
하여 자주 問候하였고 尤庵,
邃庵의 遺像을 草堂에 두고
마음속의 스승으로 모셨으며
늘 山水를 좋아하여 各地를
두루 찾았으며 風土, 人物,
江山, 樓臺를 접할 때마다 詩
文을 남겼으며 1935년 7월
24일에 74세로 畢하여 보성,
鳳德面 舞灘 선영아래 葬하였다.

果庵遺稿는 安圭容의 序
(1941)와 李教川의 跋
(1940)에 依하면 그의 翳子
璉鐸이 遺稿를 수집하여 宗門
의 도움을 받아 엮은 것인데
간행은 1980년에 이루어졌다.

追慕吾先祖 坡山緩步歸
當年封伯地 行盡族親稀
(우리 선조님 후모하니
파주에서의 발걸음 더디네
당년에 曲城伯으로 봉해진
땅 일가들 드물고 발길 끊겼
네)

- 留宿慶山龍基里宗人 在敬
家 再從孫 道烈早孤年幼能知
讀書贈詩勉之 -

世間萬千事 莫若讀詩書
聞有賢嬪訓 敬承母或疎
(세간의 여러 일들중에
만약 시서를 읽고 어진 어머
니의 훈계를 듣고 어머니의
그 뜻을 받들어 이를 이는
드물 것이다.)

- 豊德省掃 太師公墓而吟 -
璃谷馬山蒼海回

先塋四位幾崩頽
舊碑記得廉公字
遠齋含悲掃碧苔

(푸른바다 휘돌아 白馬山 리
곡에 선영4위의 묘소 얼마나
허무리지고 쇠했기 廉公이란
글자만 옛비석에서 읽을 수
있네. 먼 후손은 설음 삼기
며 푸른이끼 닦았소)

- 長湍墓所省掃后 謹次先世
風字韻 -

三韓元老有遺風
省掃双墳一洞中
讀罷碑文瞻望立
天長地久恨無窮
(三韓의 元老에는 유풍이 이

- 居昌剪尺里次學古齋韻 -

潛湖之上德山邊

梅軒遺風百代傳

黃菊蒼松存栗里

奇花品石保平泉

名聲自異北南阮

誠孝還同大小連

淪落天涯須莫恨

待他三五月重圓

(물 흘러 고인 위 덕산변에
매현선조의 위품이 百代로
전하는 곳

노란국화 푸른 솔 울리에 있
고, 기이한 꽃 여러 모양의
돌 평천에 놓여있어
여러 고을에서의 명성이 다
르지 않고 誠孝 이어진바
줄줄이 이어져 하늘 끝에
외로웁게 된 것 누가 한하리
기다리면 밝은 달빛 되돌아
오나니)

- 海平里 次冠雲亭韻 -

松京舊族落南州

遜跡花林不出頭

十代由來開別界

一區占得起新樓

客到休言秦富貴

我聞惟尙魯春秋

冠雲山下沿滔水

萬折必期東向流

(고려에서의 옛거족이 남쪽
끝으로 흘러 화림에 숨어 나
타나지 않았네.

오랫동안 이어져 별천지 열
고 한 구역을 차지하여 새로
운 터전 이르겠네.

지나는 객은 쉬며 진나라의

부귀를 논하고 우리는 오직
노나라의 세월을 기린다오.

관운산 밑 유유히 흐르는 물
여러 구비 휘돌아 동쪽을 향
해 흐르나니.)

(詩)
丁酉元月八日與族孫宅洙及鄭
台運.

日老盧翁歷訪宿溪堂鴈懷.
祖考悔窩公旌閭回甲日感吟.
孫綾州(麟鏞)輓.
草溪宗人(常義)輓.
元月5日三從兄蘆月族兄三翠
(在敬).

三從姪桐坡采鉉 등 諸朋會.
省掃參判公墓宿昌寧洞.
到固城梨堂里宿宗人孝達家.
到密陽鷹巖宿宗人秉桓家.
到長田與諸敘情奉蕃梅軒影堂.
午到草溪双冊面城山里宗人大
淳家.

三從兄蘆月族孫哉軒(洙學)同
約.

族孫悰洙 白洙 宗源等 永思齋
暇日詠懷.

五月十一日蘆月六旬生朝爲頌
禱.

清溪影堂外三門重修落成韻.
題孫天人事實後(族姪正錫妻).

(書)

上三從兄 蘆月.

與族孫 敬甫(洙學).

答族孫 敬安(宅洙).

答族姪 性年(日錫).

與宗人 東夏.

答族孫 奉汝(東翼).

答族孫 子善(鍾烈).

答宗人進士(正鏞).
(序)

坡州廉氏 大同譜序(壬戌九
月 下幹).
贈族姪性年小序.



◇ 강화 선원면에 있는 중시조 및 2세 3위의 사단 전경

다.

4券 1冊으로 된 遺稿는 1券에는 詩를 2券에는 書, 3券에는 雜著와 序, 記, 跋, 祭文, 墓表, 墓誌文, 行狀, 婚書 등이고 4券에는 그의 行狀, 墓表, 祭文이 실려있다.

遺稿中 아래 詩文을 새겨보았다.

- 謹次 永思齋 原韻 -

桐北綿西麓 永思齋適成

憑欄名義顧 百世奉先情

(桐北에 연한 서쪽기슭에 永思齋 어울리게 이루어져 난간에 기대어 빛난 공훈 회상하노니 百세토록 선조의 유지경전히 받드리)

- 長湍省掃行 與族姪世鉉
族孫 秉燮, 所經沿路吟 -

平明登裏裏 薄暮下龍山

可惜諸名勝 電過警眼間

(밝은 날 마을 뒤를 올라

어둠해서 龍山으로 내려오니

애초로위라 빛나던 그 이름 들, 빠르게 눈언저리에 희미해지네)

- 到坡州 -

어져 한동 중에 있는 두 산소를 성묘하고 비문 읽어보고 멈추어 서서 바라보았네. 천만세의 먼 세월 속 무궁한 한스러움)

- 與宗人尙義 抵陝川邑訪宗人基錫 來尋因吟 -

宗人尋不遇 出宿柳邊家

遙憶鄉山菊 近開幾朵花

(일가의 집을 찾았으나 만나지 못하고 나와서 베드나무 옆 집에 유숙했네.)

아득히 고향산에 국화는 지금쯤 몇 가지나 피었을까)

- 次景賢當韻(在安義盤溪) -

講堂盤谷裏 景仰祖先賢

遺像七分有 賦謨千載全

芝非無本草 體是有源泉

淵勉丁寧訓 揭諸壁上傳

(반곡의 강당뒤에 선조의 어진상 우러러보니 유상은 7부 초상화요, 모사한 솜씨 천년 후까지 보전되리.)

지초는 풀 아님이 없고

예천은 그 원천이 있는 법

연재, 면암의 정중한 글이

벽상에 걸려있네.)

東江遺稿

廉秉燮은 忠敬公 21세손으로서 高宗 19年 壬午(1882년) 12月15일에 教官에 이른 父親 譚駟洙와 慶州李氏를 母로 하여 鳳德坊 오산리에서 출생하였다. 字는 洛現이며 號는 東江이고 譚는 秉燮이다. 菊坡公에서 이은 家系는 入宝城하여 參奉벼슬을 한 譚浩의 後裔로 모두 孝誠이 지극한 家風을 이어 받았다. 祖父되시는 譚基鉉은 5세때 母喪을 당하여 주야로 슬퍼곡하니 빈소에 여러 가지 기적이 일어났고 그 후 계모를 맞이해도 지극히 奉養하여 지조를 지키고 청빈하게 살면서 五兄弟가 화목하게 지내니 鄉人們이 모두 칭송하여 지극한 孝誠으로 通政大夫 副護軍이 되고 三세가 모두 追贈되었다.

父 되시는 譚駟洙도 지극한 孝誠으로 父母를 섬기고 근검

짓고 소요하였다.

이웃과 멀리 있는 일가분과 도 交友하면서 詩歌를 짓고 時勢를 담론하면서도 나라를 잃고는 더욱 출세하지 않았다.

1950년 庚寅2月에 69세로 別世하여 美州寒泉面 猪峯에 장사지냈다.

栗山錫九가 東江釣臺銘을 짓고 石田 李炳壽가 釣臺上樑文을 지었으며 竹山 安鍾南이 公의 行狀을 지었고 安東 權命이 墓碣銘을 普序했다.

슬하에 世煥, 太煥의 二男이 있다.

— 東江釣臺 原韻 —

丙寅 5月1日 因山後

—釣東江萬念疎

百年邱壘悵望餘

春梅秋菊天然歷

岩壁雲檜籍外居

碁罷松陰眠瘦鶴

船回躋月獻遊魚

客來時間興亡事

說興鱗經一部書

(다음면
으로)

小心齋公范 孝行錄

廉公范은 英祖 40年(1764년) 甲申 3月12일에 지금의 統營군에서 父 德載와 母 金海金氏와의 사이에서 出生하였다.

忠敬公의 17世孫으로서 壬辰亂때 功을 세워 原從功臣이 된 彥祥장군은 公의 五代祖되신다. 모친이 三足鳥(해속에 있다는 세 발 달린 까마귀)의 꿈을 꾸고 임태하였다고 하며 일찍부터 姿稟이 특출하여 7~8세때부터 좋은 음식이 생기면 반드시 父母님께 먼저 드렸고 모친이 새 옷을 입힐려고 하면 어찌 나만 화려한 옷을 입을 수 있느냐며 사양하였으며 아이들이 父母의 흥을 보면 너희들도 父母가 있으면서 어찌 남의 父母의 흥을 보느냐며 나무랬다. 글공부를 하면서부터 조상 모시는 글귀만 보면 박복하여 익히고 생각하는 등 天性이 孝誠을 몸에 익힌 듯 했다. 또 커서 父母를 봉양함에 있어 반드시 三生(소, 양, 돼지)을 갖추었으니 혹은 너무 지나치지 않느냐고 하면 어찌 자손이 되어 정성을 다 하지 않을 수

있느냐 하였다.

父母님께 여름에는 시원하게 겨울에는 따뜻하게 모시며 병환이 있으면 하늘에 비는 등 정성을 다 하였고 심지어는 父母님의 배설물도 직접 점검하는 수고를 다 했다.

公이 20세인 癸卯 8월 24일에 부친상을 당하여는 몸이 상할 정도로 심혈을 기울여 그 통곡함이 너무 간절하여 이웃이 모두 感泣하였다.

모친의 병세가 심해 侍湯과 간호에 침식을 잊고 모셔 公은 50이 못되어 수염이 다 희었다고 하며 모친이 일찍부터 구은 평고기를 좋아 하셨기 한여름 산에 올라 이를 구하며 찾다가 마침 새끼를 품고 있는 평을 보고는 잡으려다 어미와 새끼가 불쌍히 여겨져 못 잡고 돌아와 어머님께 고하니 모친도 비록 미물이지만 나 때문에 어미와 새끼를 헤쳐서야 되겠는가 했다. 이웃에선 그 어미에 그 자식이라며 칭송하였다.

모친이 76세가 되고 公이 43세때인 1807년 丁卯 10월 4일에 돌아가시니 상제를 더

욱 엄숙히 하였다. 상예를 마치고 부친 묘옆에 여막을 짓고 아침엔 어머니묘에 저녁에 부친묘에 곡하며 추위와 더위에도 승묘를 빠진 적이 없었고 深山이라 짐승들이 묘역을 유린하니 公은 밤마다 이를 지키며 맹세하기를 나의不足한 효성 때문이라며 더욱 정성을 다한 이후에는 짐승이 자취를 감추었다고 固城誌에 전하고 이 골짜기를 “無豬洞”이라 고쳐 부르며 지극한 孝誠에 하늘이 感應하였다고 하였다. 또 자식없는 叔父 섬기기를 아버지 섬기듯 하여 집안일을 맡기고 도와주었으며 고모를 위해서는 이웃에 집을 짓고 살게하고 돌아가시자 어머니 모시듯 장사를 마쳤다.

5世祖까지의 조상묘소에도 石物을 두루 갖추고 祭田을 두었으며 또 선산 주변 사람들도 여럿을 구제하고 후손들에게도 진지하게 孝道의 길을 가르쳤다. 1809년 公이 쓴 小心齋自序에 의하면

— 나 늙어서 후원에다 서실을 짓고 小心齋라 하고 自號하였는데 이는 옛 先賢의 말에 담은 크게 마음은 적게 (膽慾大 心慾小)라 하였다.

周易에서의 日乾夕惕, 書傳의 競競業業이나 詩經에 戰戰兢兢, 中庸에서의 慎獨, 大學의 誠意라 한 뜻의 근원이 마음을 적게 하라는 뜻인데 내 부족한 心性으로 편하게 있을 때는 위태로움을(居安而思危處) 한가 할 때는 바쁜 것을 생각하며(閑而思忙) 일에 임해선 두려움을 생각하고(臨事而思懼)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仰則恐有愧於天) 엎드려는 사람들에게 부끄러운 일이 있을까 두려워하며(府則恐有怍於人) 하루종일 끊임없이 허물이 없기를 생각하니 이것이 나의 “小心”的 뜻이다 —

라고 하였다.

만년에는 小心齋에서 조용히 살면서 溪川을 끌어 봇을 만들고 대를 심어 물을 만들었다. 주위에는 花草와 나무를 고루 심어 환경을 깨끗이 하고 갈건을 쓰고 야복을 입고 글을 읽고 詩를 쓰며 飄然히 살다가 純祖21(1821년) 辛巳 10月4일에享年 58세로 別世하여 固城孤峯甲坐에 장사지냈는바 인근에서 輓詞를 지어 애도한 사람이 천여명에 이르렀다.

뜰밖 국화꽃 편 굽은 언덕에 초연히 옛 생각에 젖어 꽃송이를 움켜잡네.

후손에게 남긴 가르침 빛난 은자의 가르침은 풍아한 자세 감히 꽃 중에 유품인양 하다.

生朝有感(3월12일 生辰날에)

愛月良宵惜暮春

停孟同志兩三人

年年此日劬勞感

一倍微誠如在新

봄이 깊어가는 달 밝은 이 밤에 모여온 우리 여러 동지와 술잔 멈추고선

해마다 이 날 서로 수고로운 삶을 위로하니 밝은 정성들 새로히 돋아나네.

- 이 날 長男 尚俊이 올린 詩 -

孝思油然寸草春

生生一理賜天人

趨庭斟獻無窮壽

此日年年樂意新

효성의 마음 풀 자리듯 피어 오르는 봄

살고 사는 이치야 하늘과 사람이 같고,

분주히 오가며 술 권하며 만수무강 비니

새마다 이 날은 즐거운 마음 늘 새롭다.

(앞면에 이어)

동강에 낚시대 드리우고

여러 생각에 잠겼소.

오랜 세월 속에 슬픈 아쉬움 가시지 않네.

봄의 매화, 가을 국화는 피고저 세월은 가고

바위는 벽면 구름은 추녀삼아 전원에 사나니

바둑판 겉우고 솔 그늘에 조으나 나그네

뱃머리 억세풀 넘어 달뜨는 데 물고기와 노닐고 나그네와 세간사 흥망 물으면

어지러운 春秋에서의 글귀로 말하리니.

次栗山族人 -錫九- 回甲宴

萱堂八十一年春

鐵樹開化樂是眞

子弟亦歡供壽祝

還將此勻獻諸親

자당 오래 모시며 또 한 해의 봄

쇠나무에 개화하는 이 선경에서

자제들 역시 즐거워하며 술잔드리네

여러 친척에게 잔 돌리고 어느덧 내게도 잔이 오네.

- 甲子明 南谷族丈自羅州時祀來致敘話 -

百里相逢雪滿天

此行不是遂風烟

誠心懃到遠參爬

情話殷勤夜未眠

路邊錦城先隴下

棹回貝水故鄉邊

願言莫道歸程晚

雨雨風風度幾年

눈 내리는 길 멀리 여기 온 것은 바람, 연기처럼 뜻 없이 온 것이 아니다.

정성 담은 먼길의 참사에서 정 깊은 말들에 밤에도 잠 못 이루었네.

길 찾아 외주길 선영 있는 언덕 밑 그리운 바다 뱃길 고향산야.

격려하는 말들 하도 많아 돌아가는 길 늦어지네.

비바람 이 세월 그 몇 해나 이어질고.

- 癸亥春 與致洙行安義奉審盤溪影堂與可石. 紋懷於景賢堂 -

黃石山東 錦水陽 漁樵猶指 景賢堂 談花移日還題句 種菜經霖可供觴 分派源流歸海合 同根同枝葉各天 芳于今莫嘆窮途事俱是紅顏髮蒼

황석산 동쪽 봄 날의 맑은 시내물

사람들 화제는 오히려 경현당에 눈 머무네.

오랫날 꽂노래해도 또 그 말에 화제 머물고

봄비 오는 날 소채로 안주해도 흥이 있네.

핏줄기 나누어져도 그 뿌리는 바다에서 물이 모이듯 합쳐져 같은 뿌리 같은 가지의 잎새는 자라도 향기 드높으나 앞길이 염려되네.

우리 지금 붉은 얼굴 푸른 수염세나나마 함께 일하세요나.

- 與可石訪月坡(大鉉) 宗氏因與奇化 共住柳氏 盤松亭 唱和 -

追隨數日破胃塵
正喜花枝葉葉新

月兮有約應來夜
石以無言是可人

半千里外相逢客
四百年前其饗親

非是愛吟留紅念
好將蘭帖向松隣

여러날 함께 속 마음 헤치고 지냈네.

기쁘고 반가운 일가 면모 새롭고

언제라도 기약 있으면 또 찾으리라고 말없어도 굳은 정소로 오가네.

먼길에서 찾아온 객은 400년 전에는 한가족 일가들 좋으나 궂으나 사랑으로 丹心지켜서 난초첩 좋을시고 이웃 소나무와 어울려 빛나네.

(碧江)

配曲阜孔氏는 公보다 3년 전에 出生하고 5년 먼저 別世하였는바 乾位와 同原에 장사지냈는바 슬하에 三男一女가 있다.

- 小心齋 賢物有懷詩 -

道善里之知法洞

數間新構小心吾

天地無窮生死憾

淚看豺獺又聽鳥

도선리 지법동에

두어칸 새집지어 소심재라 천지는 무궁한데 생사 있음

이 한스러워

눈물로 시달을 보고 까마귀 소리듣네.

- 追慕梅軒公 -

自祖宗來 種德門

老梅花發結芳根

臘雪新春明月夜

滿庭餘蔭庇兒孫

덕문으로 이어지는 우리 조상들의 가문은

향기로운 뿌리 내려 오래된 매화 가지마다 꽂피고

설달 새봄 달 밝은 밤에,

뜰 가득 넉넉한 그늘은 우리 손을 감싸네.

- 追慕菊坡公 -

園外鬱菊坡花楂

愀然感古掬秋葩

淡容自是花中逸

遺戒紛華隱者家

1847년 丁未에 唐城洪直弼이 行狀을 짓고 1848년 戊甲에 公께 旌闈의 命을 내리고 1852년 壬子에 刑曹參議恩津宋來熙 孝子廉公墓碣銘 짓고 1861년 辛酉(哲宗 12년)에는 孝行卓異하여 公에게 通訓大夫 戶曹佐郎에 穩人孔氏께夫職에 의해 淑人の 敎旨가 내려지고 같은 날 5世祖되는 彦祥將軍에게는 贈通改大夫兵曹參議와 淑人 李氏에게는夫職에 따라 淑夫人의 敎旨가 있었다. 또 壬戌11월(1922년)에 開刊된 小心齋實記가 등재되고 宗人 相烈이 小心齋孝行實蹟을 썼다.

(秀東記)

동촌신경정신과의원

의학박사 廉 宇 權

대구시 동구 검사동 990-169

전화 053-983-2345

011-501-0543

先祖분의 官階와 官職

우리 坡州廉氏의 始祖님과 中始祖 및 2세 조상님의 官階와 官職의 내용을 알아보자.

고려~조선조에서 옛분들의 벼슬을 말할 때는 우선 그 분의 官階를 말하고 그 다음은 집무하는 관청의 이름과 그 곳에서 맡고 있는 職分을 말하는 것이 常例였다.

例컨데 通政大夫 工曹參議(3世耕隱公의 벼슬)의 식이다. 卽 通政大夫는 正三品 堂上官의 官階이고 工曹는 山澤, 工匠, 營繕, 陶冶의 政務를 맡은 광청이며 參議는 工曹의 長인 判書와 다음의 參判 다음가는 직위를 말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역사서에서 그 人物을 말할 때는 구체적으로 官階와 官名, 官職을 다 말하지 않고 略해서 通政大夫였거나 參議 벼슬을 했다 하는 식이었다.

우선 始祖되시는 邢明 선조님의 벼슬을 보면 이에 관한 역사에서의 기록은 고려사 권7, 문종 10년 丙申(1056년) 2월에 廉可偁(上系 三世祖로 되어있는 분)은 三韓功臣司徒 廉邢明의 後孫 … 이라고

대 명필인 清城君이 글을 쓰고 전각했다면서 그 업과를 칭송했으니 神道碑銘 내용에는 더 이상 참가하거나 삭제 할 여지가 없을 만치 완벽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功臣명은 나라에서 어느 시기에 功이 현저한 臣下에게 내리는 칭호로서 忠敬公께서는 처음에 元나라에서 돌아와 三司右使가 되었을 때 받은 功臣명은 輸誠翊戴功臣이었고 다음 받은 것은 端誠守義同德輔理功臣(贊成事右政承이었을 때)이며 그리고 神道碑銘에 있는 功臣명이니 功臣명을 세 번 받은 셈이다. (그 후 신돈이 죽고 나서 功臣명에다 “輔國” 두 자를 더했는데 功臣명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다음은 官階로 “壁上三韓三重大匡”은 正一品의 品階로서 시기에 따라 그냥 三重大匡이나 特進輔國三重大匡이라고 했다. 다음 曲城府院君인 바 李朝때는 府院君이라면 王의 장인되는 분을 말했지만 고려 때에는 王의 장인만이 아니고 正一品의 관직으로 사용되는

學”이다.

忠敬公이 돌아가시고 6年후에 菊坡公이 돌아가실 때(1382년 무진 正月)까지 더 이상 국파공에 대한 벼슬의 기록이 없으니 6년동안 승진되었을 것이다 라며 추측하나 돌아가실 때까지 이 벼슬에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난할 것 같다. 推忠輔理功臣의 이름도 역사나 文獻에는 다른 기록이 없는데 우리 門中에서 어느 때의 族譜에 推忠保節協贊功臣이라며 大同譜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두 功臣이름의 뜻도 神道碑文의 것이 격이 있고 근거도 확실하니 통일되어야 할 것이다.

重大匡은 從一品의 品階이다. (이 또한 三重大匡이라고 한 곳이 있는데 근거가 없다) 瑞城君은 一品에서 2品 벼슬의 공신에게 주어진 君호이다. 藝文館 大提學은 藝文館은 나라의 制撰, 辭令 등을 받았던 관청으로 長은 宰臣이 겸했고 다음의 大提學은 正二品의 品階로 弘文館(나라 内府의 經籍, 治文翰, 備顧問의 일을 담당)과 함께 文衡이라 하여 국가 최고의 文柄을 잡은 곳으로 學問과 관계되는

(모두 宰臣의 兼務) 다음 직

이 知事로서 正二品의 벼슬로 菊坡公이 받은 근거가 없고 清江公께서는 받은 기록이 고려사에 있다.

다음 東亭公은 忠敬公 神道碑文에 忠勤翊戴變理贊化功臣前匡靖大夫 同下評理 成均大司成 藝文館大提學 上護軍이다. 功臣 이름 다음에 前匡靖大夫라고 했는데 이는 官階의 正二品의 品階인데 前에 匡靖大夫인데 지금은 관계가 무엇인가에 대해선 言及이 없다. 門下評理란 門下府의 從二品 벼슬이며 成均館(儒學, 敎誨를 맡은 곳)의 長은 知事이고 (大提學이 兼) 다음이 同知事(從二品)며 大司成은 다음의 正三品의 벼슬이며 藝文館 大提學은 菊坡公과 같고 上護軍은 武官 正三品의 벼슬이다.

東亭公의 品階가 前匡靖大夫(正三品)이나 禍王 10년 甲子에 세워진 寧邊의 安心寺指空懶翁舍利石鐘碑文(銘文)에 보면 忠勤翊戴變理贊化功臣 重大匡 門下贊成事 判禮儀司事 兼 成均大司成 藝文館大提學 知春秋館事 上護軍 廉興邦으로 기록되고 다음 해인 禍王 11년 乙丑에 세워진 楊

이다.)

다음은 清江公이다. 忠敬公의 神道碑文에 正順大夫는 正三品上의 品階이다. 다음은 官명과 官職인데 密直司는 王命의 出納과 宮中의 宿衛 및 軍機를 맡은 곳으로 知申事는 李朝때의 都承旨에 해당되는 직위로 지금의 大統領 비서실장 격이라 보여진다. 正三品의 品階이다. 다음이 判典儀寺事인데 典儀寺는 나라의 祭祀와 贈謚를 관장하던 곳으로 判事는 이의 長으로 正三品이다. 右文館提學에서 右文館은 學者들로 구성된 王의 侍從官들의 관청으로 提學은 이의 長인듯하며 公민왕 11년과 21년에 설치되었다.

春秋館은 時政을 기술하던 곳으로 修撰官은 이곳의 正三品 벼슬이다. 知典理內侍茶房事는 內侍府는 宦官을 관장하고 王命의 傳達과 王의 日用品을 관리하는 곳으로 長은 正三品 위인 듯하다.

清江公은 忠敬公이 돌아가실 때인 禍王 8년에서 11년까지 知申事직을 역임한 것이니 오랫동안 王 옆에서 시종한 것으로 보여지며 우왕 14년에 돌아가실 때는 大司憲벼슬

기록되어 있다. 三韓功臣이란 구체적인 功臣명이 아니고 여기서는 高麗初期의 開國功臣으로 생각되며 “司徒”라는 벼슬은 三師(太尉, 司徒, 司空)이라 불리는 나라의 元老격인 正一品上의 최고 명예벼슬의 하나로 특정분야의 政務를 전담하는 것이 아니고 또 이에 합당할 만한 人物이 없으면 비워두는 경우가 많았다. 고려때도 초기부터 사용했다가 文宗때는 各 1명씩을 두기로 하였고 忠烈王때는 폐지하였다가 恭愍王 5년에는 다시 두었다가 동왕 11년에는 폐지했다는 기록이 보인다.

다음 中興始祖되시는 忠敬公의 벼슬을 보자. 忠敬公께서 돌아가시자(1382년 壬戌 3月18日 享年 79歲) 王命에 의해 당대 제일의 문장가였던 李穡이 神道碑銘을 짓어 바쳤다. 이때 忠敬公의 공식 벼슬 이름이 忠誠守義同德論道輔理功臣 壁上三韓三重大匡 曲城府院君 謚 忠敬公이다. 후세에 이 神道碑는 “三絕”(세 가지 뛰어난 점)이라 하여 우선 忠敬公의 생애 그 혁혁한 功勳이고 다음 당대 제일의 문장가인 牧隱이 글을 짓고 당

경우가 많았다. 忠敬公께서도 따님 한 분만(恭愍王妃, 慎妃) 王妃였는데 左政丞이었을 때와 그 후 領三司事직이었을 때의 두 번에 걸쳐 府院君 벼슬에 이른다. 近年에 와서 忠敬公의 벼슬명에 첨가해서 都僉議門下侍中이란 관명이 더 붙는데 무슨 근거와 이유에서 첨가되었는지 알 수 없다.

都僉議府는 忠烈王때와 恭愍王때 일시 中書門下省을 고쳐 불렀던 이름이고 門下侍中은 門下府의 으뜸 관명이다.

참고로 忠敬公께서 歷任하셨던 官名을 열거해 보면 領都僉議司事, 曲城伯門下侍中, 領三司事, 領門下府事, 都僉議贊成事, 都僉議左政丞, 開府儀同 三司上柱國, 守門下侍中, 曲城候, 判門下事, 등은 고려사 列傳이나 神道碑文에도 歷任한 기록이 보이나 “都僉議門下侍中”的 벼슬을 받았거나 고려사에는 그런 官職이 보이지 않으니 글자가 첨가되어서 부끄러움을 사게 된例라 할 것이다.

다음은 菊坡公의 벼슬이다. 忠敬公 神道碑文에 기록된 菊坡公의 벼슬은 “推忠輔理功臣 重大匡 瑞城君 藝文館 大提

모든 일에 관여하며 本人이 사임하지 않는 한 終身동안 在任하였고 前任者の 추천으로 후임자가 임명하는 게 常例였다.

菊坡公 벼슬은 大同譜에 知春秋館事의 직이 첨가되었는데 역사에서나 文獻에 근거가 없고 春秋館(時政을 기록하는 곳) 長인 領事와 다음의 監事

州 太古寺 丹證國師 塔碑文(銘文)이나 고려사에 보면 三司左使 廉興邦이라 기록된 것을 보면 東亭公의 최후의 벼슬은 重大匡(從一品) 三使左便이고 菊坡公과 같은 瑞城君에 봉해졌다고 후대에서는 수정해서 말해야 될 것이다. (三司는 나라의 金錢과 곡식의 出納 및 會計일을 보는 곳

에 있었다고 고려사에 기록된 것으로 보아 최종 벼슬은 大司憲의 從二品의 官階이고 司憲府(時政矯察, 風俗糾察, 彫劾 등 담당)의 長이니 從二品上의 榮祿大夫로 하고 右文館提學은 文衡이니 “榮祿大夫右文館提學, 司憲府, 大司憲”으로 벼슬명으로 함이 가하다고 생각된다. (林內樵夫)

宣武原從功臣

宣祖25년 壬辰(1592년)에倭軍 15万이 侵入하고 또 宣祖30년 丁酉(1597년)에는 14万의倭軍이 全國土에 侵入해서 우리 나라는 많은 人命이 損失되고 財產의被害를 입었는데 이 亂도 일으킨 張本人인 豊臣秀吉이 戊戌8月(1598년)에 죽자倭亂도 終熄되었다.

壬辰, 丁酉 2차에 걸친 약 7년간의倭亂이 끝나고 万歷34년(宣祖38년 1605乙巳) 4月16일에 亂中에 功을 세웠던 功臣을 도왔거나 功臣에 벼금가는 功을 세운 사람들에게도 포상이 내려졌는데 이 功을 宣武原從功臣이라 했는데 錄券에 依하면 等乙良 宣武原從功臣 一等, 二等, 三等

으로 나누어졌는데 一等에는 加一資(한계급 올려주고) 자손 承蔭(그 자손에게도 읍덕이 주어진다)하고 후세의 父母에게도 封爵을 하였고 二等에게도 加一資와 子孫 承蔭 및 後世자손중 자원함에 따라 散官(일정의 직무가 없는 벼슬)이 주어졌고 三等에도 차등에 따라 포상이 이루어져 通訓大夫 이상의 벼슬이 追贈되었다.

原從功臣에서 특이한 것으로는 위로는 豊原府院君 柳成龍 - 亂中領議政 - 前兵使 郭再佑 - 晋州城싸움의 有功者 - 等 人士에서 아래로는 免役된 人士나 官奴, 私奴 등 賤民도 포함되어있다.

이 中에서 坡州廉氏일가분의 先祖로는 一等으로는 訓練

院正(正三品下)의廉末卿(9世孫) - 清道 龜淵祠에 奉祀 - 와 二等으로는 僉正(從4品)의廉彥祥(12世孫) - 統營 忠義祠奉祀 - 와 守門將, 廉傑(12世孫) 守門將廉瑞(12世孫) 守門將廉弘立(13世孫)이 康津의 柳川祠에 奉祀되고 三等으로는 色吏(地方관아의 屬僚)廉彥秀(8世孫) - 沃川 龍江祠奉祀 - 등 여섯 분이 계신다. (秀東)

K.B.C.(주) 광주방송

회장 廉洪燮

전화 062-950-5000

先祖 두 분의 관계는

歴史의 어느 面은 事實과 다를 수도 있으나 기술 내용의 전후상황을 견주어 볼 때 사실을 기술 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는 부분이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個人이나 한 門中의 주요사항이 비록 歷史의 사실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후대에 설사 알았다 해도 그냥 묵과해 버리는 수가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오류는 덮어두거나 거론하지 않는 것 만이 옳은 것은 아니다. 조금은 지금까지의 믿음 때문에 허탈한 정이 감돌아도 드러 거론하거나 의문점을 과감히 노출시켜 보다 정확한 사실을 알아 정립하는 것이 正道라고 본다.

우리 門中에서 1986년 8월 甲寅譜을 發刊할 때 言及하기를 지금까지 우리 上系가 확실하지 않았는데 이제야 系代를 定立할 수 있었다고 자찬했고 또 그 定立과정을 1984년~1985년에 걸친 大宗會의 여러 會議에서 可決되었다고 하였다.

은 근거나 실증이 있었을 때는 再論이 되어야 한다. 더욱이 누구는 누구의 아들이라는 類의 판단은 大宗會 任員會나 總會에서 論議할 수 있는 성질의 안건이 아니기 때문이다.

고려말의 기사의 몇 부분에는 오류의 부분도 보이지만 그래도 대부분이 믿을 수 있는 내용이라고 믿어지는 고려사에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대동보에서의 내용을 비교 검토해 보자.

- 고려사에서 발췌 -

1. 고려 文宗10년 丙申 (1056년) 2月 廉可偁은 軍器丞 “位의 아들로 三韓功臣 司徒 廉邢明의 孫으로서 庚戌年中(1010년) 청장기에 環衛公子軍에 편입되어 있다가 거란군의 침입으로 서울이 소란해지자 부모를 모시고 고향인 峯城縣(지금의 파주)으로 가던 중 납치(포로가 되어) 당하여 거란에 가 있다가 清寧元年(1055년) 正月에 아들 하나를 데리고 백발이 되어 돌아왔다. 왕은 이 보고를 받

癸亥日에 廉顯을 右輔闕으로 임명하였다.

(권5, 세가5 덕종)

4. 靖宗이 丙戌 12년 (1046년) 5월 己未日에 33세로 별세하자 學者이고 宰臣인 廉顯이 王命에 의하여 즉은 王을 위하여 謐冊文을 썼는데 시호는 容惠, 廟號는 靖宗 陵號는 周陵이라고 했다. (노사신 강희맹, 서거정, 양성지 등이 成化14년에 完成한 東文選에서)

발췌기록 1에서

可偁이 청장기인 1010년에 軍에 편입되었다면 20전후의 연령으로 보는 게 상식이다. 또 1055년에 白髮이 되어 돌아왔다면 약 45년동안의 고생했던 것도 감안해서 그 때 나이는 약 66세가 된다. 可偁이 1010년에 20세 전후이니 역산해서 出生년은 990년 경이다. 이때 父되는 軍器丞 “位”的 연령은 약 30세로 본다면 出生년은 960년이 된다.

邢明이 “位”的 父였다면 “位”가 出生은 960년이고 30세 정도였다면 出生년은 930년 경이 된다.

에 잃어버린 또 한 世代가 있고 따라서 可偁은 고려사에서 邢明의 孫이라고 했던 부분은 邢明의 손자가 아니라 후손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사실 고려사 번역본(이북판)에서는 可偁의 邢明의 후손이라고 번역되어 있다. 再言한다면 年代의 계산으로 邢明이 王建과 同時代(별도 론증 참조) 사람이라면 邢明 → ○ → 位 → 可偁의 系代 순서가 합리적이다.

발췌기록 1~4에서

大同譜 丙寅譜(최신 1986년판) 上系에는 可偁의 子로 顯을 올려놓고 있다. 그러나 이 결정에는 다분히 모순성이 있다. 즉, 可偁은 청장기인 1010년에 피납되어 갔다가 피납된지 45년만인 1055년에 아들 하나를 데리고 백발이 되어 돌아와 王命에 의해 고향의 땅과 家宅을 찾았다고 하였는데 이와는 따로 廉顯은 고려 德宗초인 1032년 처음 실시된 國子監試에서 試官이 되었을 때 벼슬은 右拾遺였고 나라의 學者였으니 나이가 30~40대의 연령으로 보는 것이 순리이다.

臣이고 學者의 입장에서 王命에 의해 죽은 王의 謚冊文을 써서 바쳤다. 이 때 廉顯의 나이는 50세가 넘었을 나이이니 可偁이 돌아온 1055년에는 可偁과 동연배인 60세가 넘는 나이로 계산된다.

때문에 可偁과 顯의 行蹟과 나이를 비교해 보면 父子間이라고 볼 수 있는 年代 계산이 궁정될 수 없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丙寅譜에 기록된 두 가지 관계의 의문점을 제기하였는바 혹 뜻 있는 일가분들은 그대로 놔두던지 그 모순성을 파헤쳐서 어떻게 할 것인가의 방침을 세워야 할 것이다.

처음에서 말 한데로 이와 같은 물음에는 결론이 있어야 만 지금까지 검토한 뜻이 주워질 것이다. 이와 같이 같은 내용의 고려사만으로 모순성 내지 의문점이 제기되었으니 믿을 수 있는 역사서에서 새로운 근거가 발견되거나 같은 책 속에서라도 다른 사실이 발견될 때까지 邢明 → 位 → 子可偁의 관계와 可偁 → 子顯 관계는 더 이상 결론으로 확정하지 말고 邢明 → 子

大宗會에서 決議된 사항을 지금와서 월가월부하는 것은 부당하다 라고 일반은 말할 수 있겠지만 大宗會 決議라고 하더라도 再論할 수 있고 또 월가월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특수성도 궁정해야 한다.

왜냐하면 누구는 누구의 아들이다 라고 大宗會에서 決議되었을 때 後日에 그렇지 않

고 가엾게 여겨 고향에 있던 옛 땅과 家宅을 되돌려 주었다."(고려사권7, 세가7, 문종 1)

2. 德宗初年(1032년) 처음 실시된 國子監試에서는 定員이 없었는데 初年에 右拾遺 벼슬인 廉顯에게 命하여 國子試에서 鄭功志 등 60人을 뽑았다.(권74, 志28)

3. 德宗 2년(1033년) 9月

고려 太祖 王建이 67세이던 943년에 별세하였으니 이 때 邢明은 13세 少年期밖에 안되니 王建과 同時代人이라 고는 볼 수 없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 始祖 邢明을 王建과 동시대분이고 벼슬이 三韓 功臣 司徒였다는 사실을 거의 믿고 있는立場에서 보면 年代가 맞지 않는다. 분명히 짐작되기를 邢明과 "位" 사이

그렇다면 父인 可偁이 피남 되었던 기간인 1010년~1055년간에 아들은 국내에서 벼슬을 했고 또 可偁과 동연 배로 계산이 된다. 즉 可偁이 1010년 20세이면 1032년에는 42세가 되고 이때 顯도 30~40세로 짐작되기 때문이다. 또 다음해인 1033년에는 顯은 右輔闕로 승진되고 1046년에는 靖宗이 죽자 宰

位 사이에는 한 世代가 있다 는 전제와 可偁 → 子顯의 관계는 父子간이 될 수 없다는命題를 가지고 후손들은 찾고, 연구하여 어느 면으로는 틈이 없는 正論을 창출해야 될 것이다. 잘못 알고 믿는 것보다는 모르니 덮어두고 연구한다는 입장이 더 보람되고 값진 使命이 아닐까 싶다.

(碧江)

行列에 관하여

옛부터 각 개인의 이름자에는 行列(항렬)이 있어 같은 等輩의 系列를 알아보게 했다. 같은 항렬이면 兄弟이고 한 대가 틀리면 위로는 叔항렬이고 밑으로는 子항렬이다.

姓氏마다 行列를 정하는 방법으로 一, 二, 三, 四, 五의 숫자를 쓰기도 하고 또 甲, 乙, 丙, 丁, 戊 十干의 순을 쓰기도 하며 또는 金, 水, 木, 火, 土의 五行의 순서를 쓰기도 했다. 五行에 의한 行列에서 같은 行列의 돌림자가 二자이름의 上에 붙어 金자돌림(錫, 鎬, 鎭 등)이라면 그 밑의 行列의 돌림자는 二자 이름의 下에 붙여 水(洙, 淳 등)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규제가 한 문중에서

옛부터 일정했더라면 모르나 같은 성 같은 본이라도 어느 지방은 17세부터 土자 돌림을 밑에 붙여 써 왔고 다른 지방은 19세부터 土자돌림을 위에 붙여 써 왔다면 다음 世代부터는 대 혼란이 일어난다. 우리 坡州廉氏도 옛날에는 行列에 돌림자가 없다가 20세가 되어서 각 지방마다 五行의 돌림자를 쓰기 시작했는데 全國이 統一되지 못해 어느 지방은 밑에 變자 돌림이 22세이고 어느 지방은 變자가 밑에 있어도 25세이다. 또 20세부터 五行에 의해 어느 지방에 잘 지켜지고 있어도 한 번은 돌림자가 2자 이름 위에 붙고 다음 世에는 돌림자가 밑에 붙어야 하는데

兩代에 걸쳐 돌림자가 밑에 붙어 있는 경우로 이어진 것을 볼 수 있다.

옛부터 이름에서의 行列은 兄弟行列을 바로 알 수 있는 등 편리한 점도 있었으나 近年에 와서는 혼란의 소지가 확대되고 있다. 이전에는 같은 성, 같은 본이라도 人口수가 적어 같은 글자의 돌림만으로도 作名하기 쉬웠으나 요즘에서는 人口가 많아져서 우리 문중만 하더라도 최근에 발간된 대동보를 보면 仁變이란 이름이 30여명이고 大變이란 이름도 20여명이 넘는다.

이름이란 그 사람의 호칭인데 같은 성의 일가들의 이름이 같은 이름이 많다면 매우 불편 할 것이다. 더욱이 한자가 아니고 한글음으로는 같은

발음의 이름이 더 많을 것이니 그 불편의 정도는 짐작이 간다. 모두가 경험했으리라 보는바 作名하는데 성과 돌림자가 정해지고 나머지 글자 하나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글뜻이 좋고 부르기도 좋으며 普과 數의 구성이 五行에 좋고 또 卦象도 좋은 글자를 찾기란 매우 어렵다. 이것저것을 다 맞추다 보면 이외의 글자가 나올 수 있다.

어차피 이름이 타인과 구별하기 위한 개인의 호칭이라는 本義에 충실한다면 그 活用의 범위를 넓혀 차라리 돌림자를 무시하고 作名하는게 좋을 듯 싶다. 더욱이 作名上 금기되는 長子만 쓰는 글자 東, 元, 一, 日, 天 등이 돌림자가 되어서도 안되고 가까운 일가 윗대의 합자와 중복되지 않게

作名 하려면 더욱 까다로워 진다. 行列을 같이 해 혼돈이 되는 것보다 中始祖로부터의 世代를 확실히 가르켜 주는 편이 좋을 것이다.

참고로 부언하자면 中始祖로부터 나는 24世孫이지만 대수로는 23代孫인 것이다.

우리 문중의 行列 사항(참고)

세	항 렬 자	
20	○ 洙	炯 ○
21	東 ○	基 ○
22	○ 變	錫 ○
23	圭 ○	淳 ○
24	○ 錫	權 ○
25	澈 ○	○ 變
26	○ 植	圭 ○

※ 지역에 따라 순서가 다르다.

(碧江)

(6) 2001年 11月 10日(陰 辛巳 9月 25日)

뿌리찾아 반백년을

염씨의 의미, 가치와 역사
를 안다는 것은 조상들의 뿌리와 발자취를 안다는 것이다. 그러나 1986년판 대동보가 나오기 전에는 집안내력을 알지 못했다. 어렸을 때에 “태호가 효창동에서 8대째 산다”는 할아버지의 말씀에 의하면 분명히 서울토박이인데도 ‘종친회’, ‘족보’, ‘성묘’, ‘시제’라는 말은 남들의 이야기만 같았었다.

6.25 전에 우리 집은 중조모, 조부모, 부모와 자녀의 4대 한 가족이었다. 할머니의 말씀에서 중조부(21세손)는 고조부(20세손)의 5형제 중 막내시고, 할아버지(22세손)는 중조부의 5형제 중 장남이시다. 우리는 중조모를 모신 큰집이고, 아버지(23세손)에게는 태호(24세손)가 맏이였다. 한편, 고조부와 중조부 각각의 형제분들 자손들도 거의가 대개 용산과 마포에 살고 있어서 중조모 초상때(1949년)는 많은 문상객들로 붐볐던 것과 상여를 매는 성대한 장례식을 구경한 것을 기억한다.

‘국파공파’라고 들었고, 당시 소설가 염상섭, 국회의원 염우량과 영화배우 염매리가 알려졌다. 그후 어떤 염씨로부터 송파에서 시제를 지낸다는 말을 처음 들어봤다. 그리고 한국심리학사 책에서 시카고대학 출신 염광섭(廉光燮, 재미교포, 심리학박사, 1931년)씨는 시카고대학 도서관장을 지내다 미군정요원(1946-48)으로 귀국해서 국내 심리학자들에게 미국 심리학을 소개하는데 한 뜻을 했다는 것을 알고서 자랑스러웠다.

1985년 수단을 제출하던 서울종친회의 염예관 어른께서 부천에 사는 염낙준씨가 ‘새창’ 사람을 찾는다고 해서 만나 뵈었다. 그 쪽에서 우리를 ‘새창집안’이라고 부르고, 저와는 열여섯촌간이며, 우리 10여대 이전 조상님들의 묘

가 광명시 가학동(예전 시흥)

에 있다는 것과 우리 집안의

직계보를 정리하여 알려 준

덕분에 손쉽게 줄기를 찾아서

21세손부터 25세손까지 1백

여 명을 족보에 올리게 된 것

은 행운이었다.

怡, 5세 順恭, 6세 紀, 7세 孝騫, 8세 公擧, 9세 穆東, 10세 進遜, 11세 興世, 12세 得水, 13세 正春, 14세 禮楠, 15세 永日, 16세 時萬, 17세 成彩, 18세 天浩, 19세 翯鉉, 20세 宗洽, 21세 俊榮, 22세 碩仁, 23세 英浚, 24세 泰鎬와 25세 興洙라고 줄기가 잡혔다. 이로써, 반백년 동안의 속앓이가 확 풀렸다.

즉, 우리는 1388년 무진참화의 여파로 羅州에서 5세부터 7세까지, 始興에서 8세부터 16세까지, ‘효창동 8대째’를 거슬러 올라가면 서울에서 17세(1749-1836)부터 세거한 것으로 밝혀졌다. 염낙준씨와의 인연으로 서울 청담동 염인걸씨 댁의 가학동 종친회에 처음 참석했을 때 ‘저 분이 새창집안이냐’면서 무척 반가워하였다. 그 후 만나지 못한 가학동 종친들과 염낙준씨의 은혜에 빚을 진 것만 같다.

한편, 상계 열세 분과 중시조 이후 25세손까지의 족보 입력에 재미를 붙이는 동안 고려역사에 흥미가 이끌린 것은 염문의 융성과 몰락이 고려의 흥망성쇠와 궤를 같이

국 대사를 접견한 한독수교에 있어서 최초 인물이라는 것과 ‘四方廣闊’라는 아이디어는 국민에게 지구촌의 세계인이 되라는 6백년 전의 메시지라는 것이다. 그러나 몰랐던 새로운 사실발견보다는 염문이 중국황제의 후손 또는 귀화성씨 등과 같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들이 넘치게 소개되는 것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던 2000년 9월 초 <파주염씨 화암종친회 흡>을 뜨자마자 선뜻 제공한 자료들이 흡에 올려졌다. 그러나 염태호와 염명선은 염문역사의 아마추어였다. 흡 덕분에 파주염씨대종회와 인연이 되어서 11월 초 생면부지의 70대 염종환, 60대 염태호와 50대 염명선은 잠시만 서먹했을 뿐 일순간에 한 핏줄이 되었다. 이를 계기로 문중사 전문가들이 집필한 정사와 야사들이 풍부한 坡州廉氏宗報 6-13호의 글들이 흡에 올려짐으로써, ‘화암 흡’이 <파주염씨 흡>으로 변신했고, 염문역사 컨텐츠 개발의 발원지와 접목되었다. 그 내용은, ‘씨족원류의 내용’, ‘宰相公의 책문’, ‘고려여인의 귀감’, ‘개성 염경애

황(성종때)’, ‘횡보의 발자취(탄신 100주년)’ 등이다. 이러한 글들은 대동보와 문헌록에서 접할 수 없는 것이다.

2001년에 염태호와 염명선은 흡 덕분에 대종회 이사로 선임되었다. 그리고 4월 29일 강화사단에 처음 참여해서 조상님들께 큰 절을 오리는 영광을 누렸다.

끝으로 ‘파주염씨 흡’의 운영문제를 생각해 본다. 1986년 대동보 발간이래 전자족보 시대로 치닫고 있는 시점에서 퇴직자 염명선 개인이 ‘파주염씨 흡’을 운영해 온다는 사실은 문중의 수치가 아닐 수 없다. 흡의 첫화면 [도움 주신 분들 소개]에 ‘컴퓨터, 주변기기 등 운영장비를 제공하신 분’, ‘웹에디터 등 흡 운영프로그램을 제공하신 분’을 찾는데 나선 분들이 적다. 운영자를 대신해서 말씀 올리면, 청렴한 명퇴자로서 흡 운영을 생계수단으로 삼으려는 상술이 아닌, 오로지 문중의 발전에 보탬이 되는 것 그 자체에 더 큰 보람을 찾고 있어서 흡의 슬로건처럼 염문을 사랑하는 분들의 단합된 실시일반으로 최소 유지 경비를

1953년 중학 입학때 호적 등본에서 '파평염씨'를 알게 되었고, 신입생 500여명 중 두 명뿐인 염씨의 별명은 '염소'였다. 중2때 역사시간에 '낙랑군 염사치'와 '고려말 염제신'을 배운 것은 각인되었다. 이 무렵 족보문제로 찾아오던 시흥 어른을 보았는데, 우리는 족보에 못 올렸지만

1986년판 '파주염씨대동보'를 근거로 직계혈연의 뿌리를 줄기와 갈래를 알기 위해서 상계 열 세 분과 중시조부터 새창집안 25세까지의 가승을 만들었다. 중2때 배운 '낙랑군 염사치'는 염씨득성조이고, '고려말 廉悌臣'은 중시조이며, '국파공파'는 2세 國寶의 후손으로서 3세 致中, 4세

해 온 점에서 염문역사를 밟히는 지름길로 여겨져서 였다. 이렇게 만들어진 소책자를 '국파공파 서울 효창동 직계보'라고 명명했다. 그러던 1999년 초 입문한 인터넷에서 생각지도 못했던 염문자료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 예컨대, '염제신'은 원나라 출정 당시 한국인 최초로 프랑크제

묘지', '忠靖公의 삶', '忠敬公 신도비의 영광', '충경공의 군사활동(상, 하)', '정도전이 본 東亭公의 어진 마음', '동정공의 시고', '설원록', '최영장군의 후회', '松隱公의 정절', '성현의 수필에서 보는 역사', '임진왜란과 염문의 용장', '퇴은당 염결', '참판공 염말경 장군', '파주염씨거주상

도움 받으려는 소박한 심정의 소유자입니다. 이에 대종회의 차기 이사회에서 운영자에게 브리핑을 하게 하여 운영 문제를 논의한 후 대종회 명의로 '파주염씨 흠'을 운영할 것을 건의합니다. (염태호)

(24세손, 경희의대 교수,
대종회 이사)

스승의 날을 아십니까

한 어린학생이 강경중학교에 다니던 시절 학교에서 청소년적십자활동(RCY)을 하였을 때 같은 지역에 있는 강경여자고등학교 선배들이 병중에 있거나 퇴임하고 고령으로 외롭게 생활하는 옛 스승을 방문하여 위문하고 1년 중에 하루를(5월 26일) 그 고마움에 감사드리는 행사를 하는 것을 보고 감동하여 그 행사에 동참도 하고 자신의 학교에서도 따라 이 행사를 했었다. 그러나 대전공고에 진학하게 되어서도 역시 RCY 활동을 통해 이 행사를 추진하였다 마침내 청소년 적십자 충남지역 협의회 회장직을하게 되었을 때 전체회의에서 일년 중에 하루(9월 21일)를 "은사의 날"로 정하고 행사를

하자는 제의를 하자 의제가 채택 결의되어 이 행사가 충남, 대전 전지역에 확산되었다.

이 학생이 전에 대전시장도 하고 지금은 대전에 있는 한밭대학교 총장직에 있는 弘喆(충경공 23세손)氏다.

그 후 대전공고 RCY 단장이고 충남 학생 협의회 회장자격으로 서울에서 1963년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간 개최된 12차 RCY 중앙학생 협의회에서 충남도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은사의 날" 행정의 취지를 설명하고 "은사의 날"로 매년 5월 24일을 전국 행사로 확대할 것을 제의한 바 만장일치로 합의 채택되어 전국적인 행사의 차원으로 확대되었다.

그리고 1965년 4월 부산에서 개최된 RCY 중앙학생 협의회에서 명칭을 "스승의 날"로 부르기로 하고 세종대왕 탄신일인 5월 15일로 행사를 하기로 하고 "스승의 날"의 노래(윤석중 작사, 김대현 곡)를 제정하여 보급하는 등 전 국민적 행사로 확정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우선 이러한 뜻 있는 행사가 어린학생들의 구상에서 실시되었다는 점에서 그 빛상이 순수하고 값지다 할 것이다.

옛날부터 父師 일체라 하여 스승의 은혜를 충성을 다 해야 할 나라의 은혜와 효도를 해야 할 父母의 은혜와 일체감으로 뜻을 새겼고 그 존경하는 정도가 삼보뒤에 처져서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말아야 한다는 정신이 어쩌다

오늘날과 같이 스승의 위치가 땅에 떨어지는 양상의 사회로 되었는지 통탄스럽다. 어릴적 천자문책 한 권을 다 배웠어도 책거리라 하여 학생뿐만이 아니고 부모까지도 스승의 은혜에 보답하여 잔치를 벌였는데 요즘은 각종 학교의 졸업식때는 스승을 비난하거나 협박하고 심지어 폭행까지 하는 사례가 있었고 어린학생이 선생님께 꾸지람을 들었다고 경찰에 고발까지 한다니 국가의 장래가 걱정된다 할 것이다.

진정한 교육없이 인류사회의 발전은 무엇으로 기약할 것이며 교육의 주역인 스승없이 어찌 교육의 성과를 기대할 것인가.

우리 모두가 각성하여 스승의 은혜가 참 고마움으로 전국민이 자각할 때만이 국가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작년과 금년의 스승의 날을 맞아 신문화 모서리에 스승의 날의 내력이 소개되고 廉총장의 감회가 남다를 것이라는 갤풀 기사를 보았을 때 측은한 생각이 들고 한편으로 다시 한 번 스승의 은혜가 떠오르고 스승의 날 행사가 더욱 뜻 있게 확산되어야 할 것과 그 사명감이 무겁게 가슴 속에 새겨진다.

(碧江)

坡州廉氏釜山宗親會

會長 廉圭坤

전화 053-891-5588

018-576-5588

始祖님의 年代 고찰

景泰2年(서기 1451년 文宗元年)에 鄭麟趾 등이 王命에 의해 編纂한 高麗史에 의하여 우리 坡州廉氏의 始祖 邢明에 關해 考察해 보자.

먼저 太祖년간의 기록을 보면 王建은 서기 918년 여름 6月丙辰日에 布政殿에서 정식으로 王位에 올라 國號를 “高麗”라 하고 年호를 “天援”로 하였다.

(元年夏六月丙辰卽位于布政殿國號高麗改元天援)

같은 해 8月 辛亥日에 또 다음과 같은 조서를 내리었다. “신하로서 帝王을 도와 특출한 책략으로 세상에 드문 높은 공훈을 세운자에 대하여 봉토를 나누고 높은 品階와 벼슬을 주어 그를 표창하는 것은 百代의 떳떳한 법이요 천고의 훌륭한 규례이다.

내가 미천한 출신으로서 재주와 식견이 용열하나 실로 여러 훌륭한 신하들의 도움을 받아 이 중대하 지위에 서게

26년(서기 943년) 여름 4월에 王이 내전에 나가 앉아 대광 박술회를 불러서 친히 訓要를 주었는데....

이 해 5월에 王이 편치 못하여 정무처리를 정지하였다.

丁酉日에 대신들인 廉相, 王규, 박수문 등이 王을 모시고 있었다. 王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내가 병에 걸린지 벌써 20여일이 지났다. 죽는 것은 돌아가는 것처럼 생각하노니 무슨 근심이 있으랴.....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한 안팎 중요 사무들은 태자 “무”와 함께 처리하고 나서 나에게 보고하라..... 丙午日에 王의 병이 위독하여졌다..... 王이 웃으면서 말하기를 “덧없는 인생이란 옛날부터 의례히 이런 것이다”라고 하였다. 말이 끝난 후 조금 있다가 죽었다. 王이 왕위에 있은지가 26년이요, 향수는 67세였다.

(二十六年夏四月御內殿召

들 한 명만을 데리고 백발이 되어 돌아왔으니 그 정상이 매우 가엾고 민망하다. 그의 세업으로 내려오던 토지와 주택을 주어라.”

(十年二月甲午 有司 秦沒藩人 廉可偁 軍器丞 位之子 三韓功臣 司徒 邢明之孫於庚戌年中克環衛公子軍 軍役會 冕兵 閩入京城震騷奉二親避兵于故鄉 峯城縣道遇賊被虜而去清寧元年正月携一子亡來請可偁父祖永業田舍並令還給制日可偁功臣苗裔丁年被俘棄藩土妻兒惟携一子皓首而歸深可憐憫可給舊業田廬)

이상이 고려사 初期에 있어 廉氏에 關한 기록의 전부이다. 위 기록에서 確認되는 바 廉位(군기승) 廉可偁 이 분들이 先祖로 하고 있는 坡州廉氏의 始祖 “邢明” 이 분은 어느 時代 分으로 어떠한 일을 하신분일까를 고찰해 본다.

우선 위 고려사 拔萃 부분에서 말하고 있는 “三韓功臣 司徒” 벼슬은 나라에서 최고 元老벼슬이다. “三韓功臣”이라 함은 여기서는 新羅와 後百

수 있었다고 생각될 때 湘과 相은同一人이었고 時代의 으로 보아 邢明의 孫이 可偁이니 邢明은 王建과 同時代人이라 계산될 때 王建 년간이나 그 후 司徒 벼슬에 이른 분은 湘이나 相일 수밖에 없기에 邢明과 湘, 그리고 相은同一人이라고 믿어진다.

더욱이 근간에 邢明은 王建 年間의 28將中の 한 분이고 景節公이라고 부르게 된 廉相이라는 기록문이 있는 것을 보면 더욱이 판단의 정확함을

알 수 있다. 또 王建 당시부터 廉相은 북방의 토호 출신으로 文宗이 언급한 可偁의 고향이 峯城縣(지금의 坡州)이라 하고 오랫동안(근 40년 이상) 피납되었다가 白髮이되어 돌아온 可偁에게 그의 선대로부터 내려오던 永業田과 家宅을 돌려주도록 조처한 것을 볼 때 우리 坡州廉氏는 貫鄉이 王建때부터 이미 지금의 坡州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碧江)

生活의 禪

—인생은 그렇게 사는 것—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히 살고 싶다.”라고들 한다.

어떤 친구가 말했다. 나는 독신이다. 모셔야 할 부모님도 안계시고 부양해야 될 처자도 없으니 얼마나 자유로운

가 라며 자랑했었다. 하나 여보시오. 얹매이는 곳이 없으니 자유로우시겠죠. 하나, 당신은 의지할 곳 또한 한 곳도

없으니 얼마나 외로우시겠소 했더니 그 친구는 말이 없었다. 인간세상은 더불어 사는 곳이다. 남에게 신세도지고 신세도 짚으며 때론 슬프기도 하고 어느때는 즐겁기도 하는 것이다.

언제나 조용하고 거슬리는 것이 없다면 인생은 얼마나 적막한 것이겠는가.

되었다. 그러기 때문에 포악한 임금을 폐위할 때에 忠臣의 절개를 다한 자들에 대하여 마땅히 상을 주어 그 공훈을 표창하여야 할 것이다.”

洪儒, 裴玄慶, 申崇謙, 卜智謙 등을 一等으로 하여 金, 銀그릇과 비단침구와 능라표 백등을 차등있게 주라. 그리고 견권, 능식, 권신, 염상, 김락, 연주, 마난 등은 제2등으로 하여 금, 은그릇과 비단침구와 능, 백 등을 차등있게 주라. 그리고 제3등 2천여명에게는 각각 능, 백, 곡식들을 차등있게 주라.

(又詔曰 人臣運佐時之奇略樹盈世之高勳者錫之以分茅胙土褒之嶮秩崇班是百代之常典千古之宏規也 肢出自微才識庸下誠資群望克踐洪基黨其廢暴主之時竭忠臣之節者宣行賞以賚獎勵勞其以 洪儒, 裴玄慶, 申崇謙, 卜智謙 第一等給金銀器 錦繡綺被綉綾羅布帛有差 堅權, 能寔, 權愼, 廉湘, 金樂, 連珠, 麻煖爲第二等給金銀器 錦繡綺被綉綾羅布帛有差 其第三等 二千餘人 各給綾帛穀米有差)

또 12년(서기 929년) 겨울 10月丙申日에 백제의 일길간 “염흔”이 귀순하여 왔다.

(冬十月丙申 百濟一吉于廉昕來投)

大臣 朴述希 親援 訓要 … 五
月王不豫停聽斷 丁酉宰臣 廉
相, 王規, 朴守文 等 侍坐王
曰 … 矛溝疾已 歷二旬 視死
如歸有何憂也 … 內外機務久
不決者卿等並與太子武裁決而
後聞 百午疾大漸 … 王笑曰浮
生自古然矣言訖有頃而薨 在位
二十六年 壽之十七遺命)

다음 고려사 文宗十年(서기 1056년)의 기록을 보면,

2月 甲午日에 해당기관에서 아뢰기를 “빈인들에게 납치되어 갔던 廉可偁은 군기승 廉位의 아들이요 三韓功臣 司徒 廉邢明의 후손으로서 경술년 간(1010년)에 환위 공자군에 편입되어 있었습니다. 마침 거란군이 침입하여 서울이 소란하게 되자 부모를 모시고 자기 고향인 봉성현(경기도 파주)으로 갔습니다. 도중에 적을 만나서 그들에게 납치되어 갔다가 청녕(거란의 도종년호) 원년 정월에 아들 한명을 데리고 도망하여 왔아오니 그의 선대로부터 내려오던 영업전과 가택을 돌려주도록 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왕이 다음과 같이 명령하였다. “可偁은 功臣의 자손으로서 청장년 시기에 적에게 잡혀갔다가 번토에 있는 처자를 버린 채 다만 아

濟, 後高句麗라 할 수 있는 後三國이란 뜻이 아니고 일반적인 개념으로 상징적이다. 고려후기에도 벼슬이름에 “三韓三重大匡” 하면서 三韓이란 단어가 쓰여지고 있다.

그리고 司徒라는 벼슬이름은 옛적에 중국에서 사용한 관직이고 신라, 백제, 고구려에서는 사용한 예가 없고 고려에 와서 三師(太師, 太傅, 太保)와 三公(太尉, 司徒, 司空)의 벼슬을 두어 국가의 元老級에 주어진 正一品上의 벼슬이다.

고려때에도 언제나 두었던 벼슬은 아니고 시대에 따라 정원도 없이 두었던 벼슬로 나라 元老格 임에는 틀림없다. 때문에 文宗 10년에 可偁이 여진에 피납되었다가 白髮이 되어 돌아왔을 때 고려 초의 元老였던 司徒 邢明의 후손에게 그 동안 남에게 귀속되었던 世襲의 永業田을 되돌려 주라고 한 조처는 궁정이 같다.

王建이 죽고 난 후(943년) 文宗때까지 사이에(약130년) 三韓功臣 司徒 벼슬은 한 廉氏는 고려사 王建年間에는 기록이 없고 다만 開國二等功臣인 廉湘과 王建이 죽기직전 그의 遺命을 받은 宰臣인 廉相 뿐이다. 또 開國功臣이었기에 王建 말년에는 宰臣일

빈소에서의 悲歎

나는 지난 7월 24일에 賢宗 한 분의 訃音을 받고 상가에 가서 故筵拜哭한 연후에 주변을 살펴보았다. 知面있는 사람이라곤 상주와 亡弟뿐이었다. 아 아 이럴수가!

돌아가신 賢宗 昌勳氏는 坡州廉氏 大宗會 發足 당시 발기인이자 副會長을 거쳐 現在 大宗會 고문으로 大宗會 발전에도 기여한바 至大한 분이셨다. 平素에 친척뿐만 아니라 宗人們이 찾아와도 온정으로 후대하는 분으로 알고 있으며 특히 고향일가 친족분들께는 남다른 애정을 갖고 있었으며 고향에 내려가면 四寸이며 친족들을 불러 술 사고 밥 사며 환담을 나누어 일가간에 돈독을 중시하던 분으로 알고 있었는데 빈소의 쟁쟁함을 보고 나는 自身을 의심하였다.

亡인이 平素에 이런 분이 아니었는데 아아, 이럴 수가 있겠는가 눈을 두리번거리며 左右를 살펴봐도 四寸내지 근친은 물론 大宗會 사람들도 눈에 보이지 않았다. 사람이 어느 누가 허물이 없겠는가. 그러나 故人은 過보다는 功이 많은 분으로 알고 있다. 이 지경에 이르러 倫常이 땅에 떨어져 目不忍見의 世上이 되

었던 말인가 이 세상 모든 것 이 生 아닌 것이 무엇이며 死 아닌 것이 그 무엇인가, 삶 자체는 죽음의 終着驛이며 만인의 公道이기에 迎生送死라 生 자체를 축하하며 맞이하며 死 자체를 극진한 禮로설 보내는게 아니겠는가. 한 번 神의 영역으로 돌아가면 미움도 고움도 다 사라지고 피안의 세계에서 永眠하게 되는 것을 그 무슨 미움과 恨이 남아있어 그렇게 빈소가 쟁쟁하단 말인가.

아아, 가신 賢宗이시여 미움도 고움도 다 잊으시고 고히 잠드소서. 옛 詩에 이르기를 人生雖有百年期 壽夭窮通莫預知 昨日庭前方宴樂 今朝棺內已眠屍(인생의 삶이 비록百年의 삶을 기약하고 죽고

(다음면으로)

수안상사

대표 廉正水

부산시 동래구 수안동 4-8

전화 051-552-3686

051-555-9787

(8) 2001年 11月 10日(陰 辛巳 9月 25日)

東亭公과 禪僧

先祖분의 性向이나 識見의 수준등을 짐작해 본다고 하는 것은 극히 不敬 오만스러운 일일 수 있다. 비록 先祖분이 50세에 돌아가셨다 치고 지금 내 나이 70세가 넘었다고 해도 不敬의 여지는 충분하다. 그러나 그 先祖분의 지식이나 신앙의 수준을 짐작 비판하는 입장이 아니고 오히려 새삼 존경스럽고 깊이가 대단해 보일 때 追慕와 遺志를 받드는 차원에서 선조분의 당시의 心向을 예측해 봄도 오히려 뜻 있는 일이라 본다.

東亭公 2세 선조님에 관해서는 고려사를 비롯한 여러 史書에서는 탐욕이 넘치고 不正蓄財의 元兇으로 매도하고 있지만 자세히 들여다본다면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는 울분을 느끼는 것은 역사를 조금이라도 바로 보고자 하는 입장이라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心情일 것이다. 이와 같은 일반적 울분과는 별도로 나는 오히려 동경하고 추모의 情念

으로 “理菴”으로 했던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東亭公의 청에 의해 太古스님이 “理菴”이란 號를 지어 주셨는데 우선 太古普愚 스님(1301~1382)에 관해 알아보자.

스님은 고려 末期의 분으로 號는 太古(일명 普虛)이고 속성은 洪氏이며 홍주 출신이다. 13세에 出家하여 수행하다가 1338년에 삼각산 동쪽에 太古庵을 짓고 머물면서 號를 太古라 했고 1346년에는 중국으로 유학해서 조계의 계손 石室清珙 스님의 법을 잊고 東國임제종의 初祖가 된다. 공민왕에 의해 王師가 되고 선문 9산을 통합하였는바 錫승 신돈의 투기로 속리산에 금고되었다가 신돈이 죽은 뒤 돌아와 國師가 되었다.

우왕 8년에 소설암에서 향년 82세로 입적하여 시호를 圓證, 塔號를 宝月昇空이라 하고 太古寺터에 탑비가 傳해지고 있다.

나라의 유품스님인 太古에

理路

“이치란 천하의 큰 벼리이다. 성인은 그것으로 세상사람을 편하게 하고 사람들도 그 덕에 교화를 받아 모두 본연의 “善”으로 돌아간다. 그것은 이른바 순박한 바람이 천하에 두루불면 눕지 않는 풀이 없다는 것이다. 지금 자신사 相國興邦이 號를 구하여 왔기에 理菴이라 짓고 이어서 계송으로 그 뜻을 밝히니 상국은 살펴보고 혹 생각이 있으면 높은 벼슬에 오른 뒤 오시오.

일반지식으로 헤아릴 수 없고 지혜로도 알 수 없으니 천지를 모두 휩싸고 고금을 페어 뚫었다. 원래 그러하여 하늘보다 먼저 있었고 사방에는 문이 없다.

무너진 언덕, 끊긴 시냇물에 석양이 붉었는데 꽂지고 꽂피기 그 몇 해이던고. 주인중의 주인이여 오랫동안 왕래가 끊겼는데 마음을 비워 고요히 솔 바람을 듣느니 흰구름 가고 음은 물으려 하지 말라.

이 암자에는 원래 이치의 길 막혔기에.”

이 계송을 음미해 보니 그 불교에서의 가르침의 차원이 최고승인 一乘의 경지이다.

우리가 가끔 큰 스님들의 上堂法話를 보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합리적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말들이 많다. 예를 들면 부처님의 가르침의 참뜻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麻三斤”(마세근)이니 “마른 똥막대기”니 혹은 두드려 맞거나, 악하는 호통의 벼락을 맞기 일수이다.

큰 절 산문에 들어가면 入此門內 莫存知解(이 문을 들어서려거든 너의 아름아리를 우선 다 버려라)라 했을까. 일반이나 합리적 지혜로는 헤아릴 수 없는 그것은(그것이 라고 해도 맞지 않는) 고금을 페뚫어 통하고 천지에 충만하며 하늘보다 먼저 있던 그것. 그 것 있는 곳은 들어가려도 사방에는 문이 없고 그

곳 문은 또 얼마나 넓던지 송곳 끝도 통할 수 없는 넓이 어디로 어떻게 들어가는지 웬

부처의 참 가르침은 우리나라 어느 백화사전에도 그 답이나 설명이 없을까. 이런 식으로 최상승의 경지의 스님들은 상당법어로 가끔 그 참 지혜(般若)를 말하지만 아직도 부족함이 있거나 정진이 소홀한 사람에게는 그 심중을 이렇게 어렵게 설하지 않는다. 그런 일반사람에게는 악을 이겨 선을 행하라. 참고 착한 일을 하는 것이다. 정도가 그래도 공부를 한 제자에게나 하는 가르침이다. 일가분들도 짐작하시라 太古 큰 스님이 東亭公께 하신 계송을 참으로 이해하셨는지요. 그 참아름이 무엇이고 있는 곳은 어디일까. 무엇이기에 알아들을 수 없는 딴소리 말고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은 없을까.

산이 물 위로 가고, 바다 밑 연기 나는 곳 그래도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인 상식으로도 열리는 그 곳의 그것은 무엇일꼬.

(母影居士)

이 더욱 깊게 느껴진다.

우선 과거때에도 壮元인 魁選이었고 大司成, 大提學과 知貢擧를 여러 번 할만치 뛰어난 學者였으며 武藝에도 뛰어난 上護軍이었으니 아마 몸집도 크고 당당하셨으리라.

더욱이 지금까지 전하는 詩歌를 보면 그 文藝의 깊이를 짐작하고도 남는다. 취향도 다양하셔 號도 東亭, 理菴, 漁隱 등 다양하다. 文獻에 보면 東亭記나 漁隱記와 批流亭記 등이 최근 발간된 丙寅 大同譜에도 소개되었기 많은 일가분들이 보셨을 것으로 안다.

오늘은 東亭公께서 또 하나의 號를 누구에 의해 무슨 뜻

의해 東亭公께 “理菴”이라 號를 지어주고 그 뜻을 다음과 같이 밝히었다.

理菴

理也者. 天下國家之大經也.
聖人以之. 而安天下之人物.
人物亦化其德. 而咸歸于本
然之善. 此其淳風. 吹徧天下
草無不候者也. 今知申事相國
興邦. 求號. 以理菴稱之.

仍說偈證之. 惟相國明鑑有
何則宜動魚來.

識莫測. 智不到包盡乾坤.
貫穿今古. 天然先天成. 四
面沒問戶. 崖崩澗絕夕陽紅
花落花開幾朝幕. 主中主長
年絕往還. 虛心寂聽松風吼.
白雲莫擬間行藏. 此菴本來窮

(앞면에 이어)
삶의 理致를 궁리하여 통달했다 하여도 미리 알 수는 없는 것. 어제 뜰 앞에서 잔치를 베풀고 즐거워하더니, 오늘 아침에는 관속에 이미 잠든 시체로 누워있네.)란 구절이 있다. 이 詩는 人生에 주워진 시간은 짧고 허무한 것이니 먹고 마시며 즐기라는 말이 아니라 참된 삶과 영원한 발자취를 남기고 가란 경고의 채취일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 宗族間의 만남은 崇祖敦睦이란 기치 아래 大宗會가 결성되었건만 그 언제부터인가 地域利己主義와 自私利己

<敏燮>

先祖분들의 遺稿

나이가 들어 이제 조금은 철이 드는가 보다. 하기야 짧았을 때도 가끔은 못다한 孝道 때문에 생전에는 그리 관심이 없던 아버님의 유품이나 글귀들이 이제와 왜 그리 소중하게 느껴지는지 모르겠다.

조그만한 유품이나 글귀 한 줄만 봐도 이제와 새로 다시 돌아가신 분을 마주하는 것 같은 친밀감과 그리움이 감돈다. 더욱이 할아버지나 더 윗 선조분들의 유고나 유품일 땐 더욱 더 그 가치가 소중히 느껴진다. 어쩌다 歷史책에서나 기타 간행물에서 조상의 흔적을 비치면 내용을 복사하거나 아예 그 책을 사 가지고 오는 경우가 많다.

무엇이 그리 그리운지 길가다가 “염”자 비슷한 글자만 봐도 관심이 모여지고 더욱이 상대가 염씨라면 초면이라도 체면 가리지 않고 고향이 어디냐 몇 세 손이냐로 시작되는 대화가 이어지기 일수다.

일찍이 책에서 忠敬公의 梅軒集이나 二世 東亭公의 文集이 있다고는 하는데 아직 진본을 접하지 못한 속에 우연히도 고향에서 나의 從祖父(錫九)께서 손수 쓰신 栗山漫錄을 접하고 또 그 내용에서

보관되어 있소 하면서 제시하지는 않을까, 또 일가분들의 조상님의 文集이 또 發見되지는 않을까 하는 부풀은 기대 속에 기다렸으나 해가 가도 아무 소식이 아직은 없어 아쉬움이 남는다.

이번 14호 宗報(2001년)에서는 그 후 수집된 東江(秉燮)과 果庵(在愼) 小心齋(公范)의 遺稿에서 그 분들의 간단한 略曆과 지으신 詩句의 몇 부분을 해석해 보고 이번에도 또 그분들과 交遊한 일가분들에게 준 詩句의 題目을 기록하고 또 후손들의 소식을 기다려본다.

최근에 發刊된 우리 大同譜 孫錄을 보면 近年에는 일가분들의 文集이 있다는 기록이 있는데 있으면 찾아서 해석도 하고 일가분들께도 홍보해서 조상분들의 업적을 기렸으면 좋겠구나 싶고 더욱이 집에서 보존하는 조상분들의 글귀나 유품이 찾아지고 홍보되었으면 오직 좋겠는가 싶었다.

(辛巳 가을에 碧江)

편집후기

宗報는 또 가냘픈 숨을 쉰다. 더 아껴주고 사랑주었으면 한다. 원고주신 민섭, 수동, 태호氏께 고맙고 이번에도 회장의 현성에 의존했다.